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계 문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98%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님께

요즘 들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5억 6,100만 부의 성경 관련 서적이 배포되었고,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약 800만 명이 성경을 자주 혹은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Dr. James Kennedy)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 목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해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조금 나은 삶’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삶은 사랑과 기쁨, 평안과 자유, 안전함 쉼과 확실한 소망을 포함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학업과 직업, 우정, 결혼과 가정, 건강,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새로운 삶이 이 땅에 서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번쯤 기독교 서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의 체험담이 담긴 책자를 구입해 보세요. 저 역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들어본 소식 중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왜 나에게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 ▶ “저는 계명을 지켰으니까요.”
- ▶ “저는 선한 사람이니까요.”
- ▶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면,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새 생명을 받게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선한 행실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죽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상대방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스스로 획득하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자, 강한 사람, 지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유리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했을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걱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설령 오늘부터 우리가 ‘삶의 저울’을 잘 맞춰가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과거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을 스스로 ‘얻어내야만’ 하고,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는 신경 쇠약에 빠지거나 절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고, 결국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에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선물에 돈을 내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요? 제가 교회 어린이반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번 크리스마스에 얼마를 내고 선물을 받았니?”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돈은 안 냈는데요, 선물 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선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원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누가 죄를 지었을까요? 모두입니다. 당신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와 나는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크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도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타조처럼, 고개를 모래 속에 파묻고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였습니다.

기독교인 상사를 두고 있던 한 비서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한 번 정도 당신이 잘못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두세 번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쯤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상사는 이렇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죄를 짓는다면 일 년이면 1000번이 되고 우리가 첫 10년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당신은 15,000개의 죄를 짓게 되는 셈입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사 59:2) “...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죄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기심, 증오, 전쟁, 고통이 없는 세상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죄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빛을 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분명한 희망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라” (요일 4:8; 단 9:14). 사랑의 결

과는 공의(정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를 눈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 3:16).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를 정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나 천사에 불과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 자신만이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려고 천사를 하나 창조하셨다면,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 값싼 희생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요 1:1~3, 14; 골 1:16; 히 1:2).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의 능력 없이는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신성한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고전 10:4; 약 4:12; 요 5:22). 오직 율법을 세운 그분 자신만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직접 짊어지심으로써,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에 빠진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영원히 멸망하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벧후 2:22, 24; 사 53:4~6).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나요?

저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벌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한 번은 재판을 앞두고, 기자가 알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장과 피고가 대학 시절 친구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재판은 완전히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횡령죄로 기소되어 있었고 결과는 고액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피고는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무관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법복을 벗고 나와, 피고였던 친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의 친구라고 생각하니?” 돌아온 건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는 너의 재판장이었다. 재판장으로서 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는 너의 친구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

그는 친구 앞에서, 방금 자신이 선고한 금액과 같은 액수의 수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재판장에게도 큰 경제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피고에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피고는 부끄러워하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감사와 신뢰를 담아 그 수표를 친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의 몸으로, 친구와 함께 법정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형벌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이미 지불된 빚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판사이십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로 5:10; 요 15:14).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우정과 초청을 감사함과 신뢰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벌까지 대신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요 5:24). 그렇게 되면 당신 역시, 자유로운 사람으로, 친구 되신 그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요 14:13).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되실까요?

그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교도소장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였습니다(행 16:30~31).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행히도 오늘날 ‘믿다’는 말의 의미는 많이 희석되고 흐릿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glauben’(믿다)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옛 독일어의 ‘geloben’에서 왔는데, 이는 ‘소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떠니다”(약 2:19). 이러한 믿음을 간단히 “지적인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이라고 해 봅시다.

누군가는 수술을 앞두고, 혹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비상시 믿음’이라 해 봅시다. 지적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비상시 믿음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적인 믿음과 비상시 믿음이 완전한 의미의 ‘구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완전한 믿음이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믿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사가 어느 젊은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여성도 그 의사를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의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이것이 바로 지적인 믿음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것이 비상시 믿음입니다.).

의사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분명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꺼이 치료해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지 환자와 의사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사랑에 응답한다면, 약혼식에서 그녀는 ‘예’라고 응답할 것이고, 결혼식에서 궁극적으로 ‘예’라고 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결혼식에서 삶을 함께하겠다고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을 그

에게 맡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맺는 언약

위에 언급한 결혼식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듣거나, 성경에서 읽게 되며, 어느 순간 그분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환자’로만 남아 있을 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언약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과, 또 그분과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합니다(이것이 약혼에 해당합니다.).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예”라고 말하듯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함

그 젊은 여성이 사랑과 신뢰로 의사에게 ‘예’라고 대답한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하고 책임 있는 “예”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요일 5:12).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요 1:12).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성경도 에베소서 5장 22~33절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예”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꿉니다. 아내는 보통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고, 서로는 부모의 품을 떠나 한 집에서 공동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했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인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나 묵상 시간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매주 안식일 하루 전체를 우리와 함께 보내고 싶

어 하신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나 교회 봉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곳에 있는 가장 위대한 유언,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 즉 묵상이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매주 하루, 안식일 동안 하루 전체를 우리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며 우리는 그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활동이나 교회 봉사로 이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유산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위’ 일까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는, 성경이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9절에 이어, 이제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롭고 변화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다시 ‘결혼’이라는 예로 돌아가 볼까요?

한 젊은 여성이 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청혼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남성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꽃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서로 번 돈으로 가정의 재정을 충당하고 집안일과 살림하는 것을 서로 돕는다면 이는 선행일까요? 아무도 그것을 결혼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당연히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나의 경험

저는 수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왔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었고, 제 이성으로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기도도 했고, 여러 번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직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일주일 동안 제 마음 속 깊은 갈등과 씨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무언가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날 저는 단순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께 제 인생의 “예”를 고백했습니다.

그 일은 제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 깊이 감동받아 매 일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 보면 오직 한가지가 후회됩니다. 바로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고 좀 더 일찍 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새로운 삶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때 진심으로 기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한 단계

다음의 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꼭 이 문장 그대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진심이며, 이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는, 마치 약혼과도 같습니다. 약혼을 통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해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결혼은 성경이 말하는 침례에 해당됩니다. 진심을 담아,

— 헬무트 하우바일

▶ 추천: 편지 1, 5, 6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문의: juheeyeon@gmail.com

memo

성경통신학교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앱스토어에 '성경통신학교'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e-러닝 강의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스마트 웹북

성경통신학교를 모바일 웹북으로 공부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Zoom)

각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Zoom)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e-러닝 강의와 스마트 웹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추천인 포인트 있음). 삼육물과 시조사물에서 사용 가능



서적 신청(유료·무료)

편하게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적을 신청하여 구독자 분들에게도 무료 서적을 보내세요.



성경통신학교

Bible Correspondence School

1670-5235

<http://www.vop.or.kr/>

